

전남 역대 소득 4500농가…전년비 5% 증가

〈2017년 기준〉

1~2억 80%…5000만~1억 9706곳·5억 이상 142곳

고흥 551농가·강진 538곳·해남 460곳·보성 415곳

식량 작물재배 1673곳·축산 1529곳·채소 742곳

전남에서 1억원 이상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45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농가는 4562곳으로, 전년(4342곳)보다 5.1%(220곳) 증가했다.

5000만~1억원 소득을 올린 농가는 9706곳으로, 전년(9676농가)보다 0.3% 늘었다.

소득 구간별로는 1억~2억원이 3649 농가로 고소득 농가의 80%를 차지했다. 2억~5억원은 771농가(16.9%), 5억원 이상은 142농가(3.1%)였다.

품목별로는 식량 작물이 36.7%인 1673농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축산 1529농가(33.5%), 채소 742농가(16.3%), 과수·화훼 272농가(5.9%), 가공·유통 분야 346농가

(7.6%) 등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981농가로 가장 많았으며, 60대이상 1706농가, 40대 이하 875농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고흥이 551농가로 가장 많았고 강진(538), 해남(460), 보성(415), 나주(319), 영암(307) 등이 뒤를 이었다.

고흥군은 ‘비전 5000 프로젝트’(5000만 원 이상 농가 5000가구 육성)를 추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됐다.

강진군은 지난해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직거래 등 유통이 활성화돼 고소득 농업인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강진군은 고소득 농가가 132곳이나 증가해

전남 시·군 중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고소득 농가 증가는 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특화작물 재배, 재배기법 차별화, 적극적인 판로 개척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특히 친환경적인 농축산물 생산과 브랜드 이미지 정착 등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 소득 향상으로 이어졌다고 전남도는 분석했다.

전중화 전남도 농업축산식품국장은 “작목 전환, 품목별 기업화, 품질 고급화 등 시책으로 농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특히 가공·유통·판매 등 6차 산업 확대, 농촌 관광 활성화 등으로 농외소득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23시 57분 30초에서 얼마나 더…

지구종말시계, 미·북 핵위기로 자정에 근접

핵전쟁으로 인한 인류 파멸을 상징하는 지구종말시계가 미·북한 간 핵위기로 자정에서 가장 가까운 자정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운명의날 시계로 불리기도 하는 지구종말시계는 핵전쟁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 지난 1947년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계획 참여 과학자들에 의해 고안됐다. 핵물리학자들은 시카고대학 운영이사회에서 발행하는 학회지 핵과학자회보(The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를 통해 핵의 발달상황과 국제관계의 긴장도 등을 반영한 시간을 발표해 왔다. 세계에서 자정은 인류의 파멸을 가져오는 전면적인 핵전쟁 발발을 의미한다.

종말시계는 처음 개제된 1947년에는 자정 7분 전이었으며 1953년 미국과 소련이 수소폭탄 실험을 시행해 자정 2분 전 까지 가까워진 바 있다. 냉전 후인 1991년에는 자정 17분 전으로 가장 멀리 늦춰진 바 있다.

과학자들이 25일(현지시간) 종말시계의 새로운 시간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간의 핵 설정으로 시계 분침이 1947년 이후 자정에 가장 가깝게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종말시계는 지난해 30초가 담겨져 현재 자정까지 2분 30초를 남겨놓고 있으나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핵버튼 크기 논쟁을 벌이는 등 미·북 간 계속되는 핵위기로 분침이 더욱 자정에 가깝게 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핵과학자회보는 다수의 동료 과학자 및 15명의 노벨상 수상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25일 종말시계의 새로운 시간을 발표할 예정이다. 회보 편집자인 존 매킨은 1월호에서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핵무기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핵위협과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도시락·조리식품 원료 쌀소비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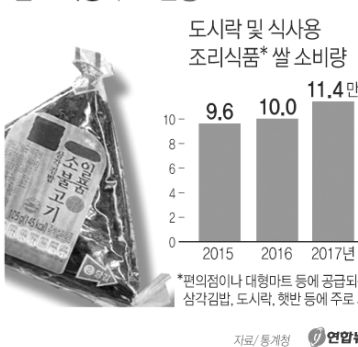
지난해 11만4341t…전년비 14.1% 증가

삼각김밥 등으로 홀로 끼니를 때우는 이른바 ‘혼밥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도시락이나 식사용 조리 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 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 양곡년도(2016년 11월 1일~2017년 10월 31일)에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 식품 제조업의 쌀 소비량은 11만4341t으로 전년보다 14.1% 증가했다. 이 부분에서 소비된 쌀은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에 공급되는 삼각김밥, 도시락, 김밥, 핫반 등에 사용된다. 분식집 김밥이나 식당에서 제공하는 밥 등에 사용되는 쌀은 이와 별도로 집계된다.

김진 통계청 농업동향과장은 “김밥을 비롯해 혼밥이 유행하면서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 식품의 소비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이들 업종에서 원료용 쌀 소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쌀 소비량 주요 현황



각 가구의 쌀 소비량은 통계 작성 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2016 양곡년도보다 0.2% 감소했다. 1964년도에 양곡 소비량 통계 작성을 시작한 후 쌀 소비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1970년으로 1인당 연간 136.4kg을 기록했는데 이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연합뉴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25일 오후 충북도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 빙상훈련장에 도착. 한국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 선수단 강릉선수촌에 등지 튄다…31일 인공기 계양

방남 女아이스하키 선수단, 진천 선수촌 도착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이 강릉선수촌에 등지를 튄다. 또 선수촌 경기 광장에는 오는 31일 인공기가 내걸린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관계자는 25일 “북한 선수단 46명(선수 22명·코치 및 임원 24명)이 대회 기간에 강릉선수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4인실과 5인실 숙소에 선수단을 분산해 생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에 따라 선수단장실, 마사지사, 창고 공간 등도 제공될 예정”이라며 “선수단은 2월 1일 입촌할 예정이지만 1월 31일부터 선수촌 경기 광장에 인공기를 포함한 전체 참가국 국기가 내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강릉선수촌을 숙소로 잡은 이유는 22명의 선수 가운데 알파인(3명)과 크로스컨트리(3명) 종목은 빼면 여자 아이스

하키(12명), 피겨스케이팅 페어(2명), 쇼트트랙(2명) 등 모두 강릉에서 경기가 치러지는 빙상종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평창올림픽 참가와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회담에서 선수단이 같은 숙소에서 머무르기를 희망했고, 빙상종목 선수들이 많은 만큼 강릉선수촌을 숙소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총감독 트리 선수 6명은 강릉선수촌에서 설상 대회가 열리는 정선 및 평창으로 매일 40여분 거리를 버스로 출퇴근하며 훈련과 경기를 치르게 된다.

조직위 관계자는 “북한 선수단을 위해

특별히 제공되는 것은 없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똑같이 지내고 선수촌 식당도 함께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 아이스하키선수단은 이날 낮 12시 30분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 선수촌에 도착, 게스트하우스에 여장을 풀었다. 남북 선수단은 이날 오후 8시 새리머리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총감독 주제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이날 윤용복 체육부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측 선발대도 강릉선수촌을 방문해 시설 점검에 나섰다.

/연합뉴스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점포임대”

- 광주 북구 매곡동 214-4번지 (대화아파트 상가)
- 1층,5평,버스승강장 바로앞, 장소좋은
- 보 500만원에 월세 40만원
- 현, 옷가게, 타업종 가능
- 비/권 - 1350만원
- 문의. 010-3605-50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 · 전원주택지

- 전북 정읍시 첨단산업단지 3300여㎡ 평당 42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면 10974㎡(3320평) 5억9천
- 원도 약산면 덕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 장흥 수운해수욕장 팬션 등 적합 2346㎡ 분할가능 평당 70만원
- 순창군 인계면 갈동리 대지 1302㎡ 사찰도 적합 7300만원
- 장성 북이면 백암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 · 원룸 · 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북구 운암동 한국아파트 165㎡ 전양층을 13층 2억5천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5백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3천

투자 · 매도 · 교환

- 담양군 청평 의항리 9544㎡ 공장등 적합 평당 40만원
- 신안군 암매읍 도촌리 전원주택등 적합 3206㎡ 6600만원
- 함평읍 돌마리해수욕장 5606㎡ 요양시설·숙박시설 다가구적합 5억

상가건물

- 서구 한전 건너편 소방도 대지 99㎡ 신축2층건물 100㎡ 3억6천
- 백운동 빌라 대지 314㎡ 건물 527㎡ 매도 7억5천
- 고흥군 동월면 팬션 땅 7061㎡ 팬션 267㎡ 8억2천
- 양동 모텔·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12억5천
- 송정동 원룸건물 대지 564㎡ 건평 596㎡ 보충금 5천에 월600원 13억2천
- 월산동 버스도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 유동 상양병원부근 대지 598㎡ 건평 334㎡ 식당등 다용도 9억2천
- 영암 월출산 밑 팬션 땅 1578㎡ 경관좋은 4억6천
- 월산동 농성초교 건너편 대지 132㎡ 미트와 주택(3층) 189㎡ 4억6천
- 주월동 무당시장부근 대지 209㎡ 다가구 14세대 328㎡ 3억5천

급 매

- 무안 한경면 팬션리 바닷가 전 4542㎡ 8300만원
- 중흥시장 부근 4층 상가주택 177㎡ 건물 482㎡ 2억7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충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충금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충금1억, 월745만) 매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충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산정동 2층 건물(보충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충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성암동 5층 건물(보충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토 지

- 서구 서창동 대지 2중주거지역 1,760㎡ 매 13억6천
- 광산구 남산동 대지 1중주거지역 421㎡ 매1억5백만
- 임암동 효천1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화정동 대지 준주거지역 1,000㎡ 매 50억
- 산정동 생산녹지,창고용지 3,810㎡ 매 20억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지리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생산녹지 3,000㎡ 매 13억2천(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땅 3426㎡ 4억2천만원(모텔허가 득)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담양군 대전면 성산리 1중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5천
- 금천면 석전리 계획관리지역 대지,답 2,240㎡ 매 4억6천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5억원 (전원주택,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집2만원 (토목공사완료, 바닷가토지, 남동향, 팬션, 카라반,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